

착한 초콜릿, 나쁜 초콜릿



◆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글을 써 봅시다.



달콤한 초콜릿을 먹어 본 경험을 떠올려 보고 초콜릿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착한 초콜릿 사세요

내가 500원을 주고 산 지우개가 있는데, 반에서 가장 힘이 센 친구가 내 지우개가 마음에 든다면서 100원을 줄 테니 자기한테 팔라는 거야. 누가 봐도 불공평한 일이지만, 힘이 센 친구가 무서워 100원을 받고 그 지우개를 주고 말았어.

이런 일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팔면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야.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무역’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 이 무역 과정에서 나라마다 가진 힘이 다르기 때문에 힘이 약한 국가에서 아주 불공평한 조건으로 힘이 센 나라에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

누가 봐도 참 불공평하지? 그래서 이런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제안한 해결 방법이 바로 공정 무역이야. 공정 무역은 말 그대로 ‘공평하고 올바른 무역’을 뜻한단다.

힘이 센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가 만든 물건에 정당한 가격을 매겨 사고, 힘이 약한 나라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에 맞는 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정 무역의 핵심이야.

서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알리 디아베이트라는 소년은 카카오 농장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했지. 농장에서 주는 식사는 푹은 옥수수죽뿐이었어. 알리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카카오나무에 살충제와 농약을 뿌렸지.

그리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나무에 올라가 긴 칼로 카카오 열매를 땀. 하루에 따야 할 만큼의 카카오 열매를 다 따지 못한 아이들은 심하게 매를 맞았지. 알리를 포함해 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아홉 살에

서 열두 살 사이의 아주 어린 친구들이었어.

알리는 몇 년 동안 수만 개의 카카오 열매를 땀지만 자신이 따는 이 열매가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몰랐단다. 알리는 초콜릿이라는 걸 들어 본 적도 없었고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몰랐지. 단 한 번도 초콜릿을 맛본 적 없었거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일해서 버는 돈은 일 년에 150달러도 채 되지 않아. 한국 돈으로는 겨우 17만 원 정도의 적은 돈을 받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 년 내내 일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쉽게 사 먹는 초콜릿이 이런 아이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믿을 수 있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답은 초콜릿을 만드는 국제적인 대기업 때문이야. 초콜릿 제품이 널리 보급되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카카오 농장이 많이 늘어났어. 이 때문에 전 세계에 초콜릿 제품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은 카카오를 생산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아주 싼값으로 카카오를 사들일 수 있게 됐지.





만약 대기업이 원하는 가격에 팔지 않으면 애써 키운 카카오를 팔 곳이 없게 돼. 농민들은 할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짝 가격에 카카오를 팔아넘겨야 하지. 그런데 농민들이 카카오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은 일 년에 우리 돈으로 많아야 고작 30만 원 안팎이야.

이렇게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게 내보내는 부모들도 있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들 대부분은 어딘가에서 납치당해 카카오 농장에 노예로 팔린 아이들이라는 거야! 어린아이들에게 농장 일을 시키면 어른에 비해 돈을 적게 줘도 되거든.

초콜릿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바로 카카오 열매에 적당한 값을 치르는 거였지.

카카오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값을 보장

해 주면, 이들이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우물을 파거나 병원을 지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야.

공정 무역을 하는 회사들은 특정 지역과 공정 무역을 하기로 약속하고 그곳에서 원료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원료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당한 가격을 받아서 좋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좋은 품질의 원료로 만든 물건을 사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좋은 거지.

하지만 공정 무역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공정 무역으로 원료 생산지에서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원료를 사 오는 건 오히려 원료 가격만 올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 만약 모든 무역이 공정 무역 방식을 택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의 가격이 지금보다 비싸지는 건 당연한 일일 거야.

또 어떤 물건에 ‘공정 무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단순히 가격을 올리면서도 양심적인 물건이라고 주장하려는 기업의 속임수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공정 무역은 ‘힘이 세고 부자인 나라가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 조금 더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지.

공정 무역이 실제로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이란단다.



1 「착한 초콜릿 사세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공정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2 카카오 농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우리가 공정 무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표에서 찾아 써 봅시다.

규	원	채	공
제	료	무	정
공	급	역	할
부	수	보	장

• 나라와 나라 사이, 지방과 지방 사이에서
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일

•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
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

3 새롭게 알게 된 공정 무역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카카오 열매를 따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도 가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시간 이상
일을 한다.을 보장받지 못하고 나무에 약을 주거나 열매를
따다. 1년에 17만 원 정도의

공정 무역은 왜 필요할까?

공정 무역, 무조건 좋은 것일까?

원료 가격만 올릴 수도 있는 일이고, 모든 무역이 공정 무역 방식을
택한다면 물건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또 ‘공정
무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단순히 가격을 올리면서도
물건이라고 주장하려는 기업의생길 수 있다.

4 3에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글을 써 봅시다.

Blank writing area with a title box at the top and horizontal dashed lines for the body text.

○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드러나는 제목

○ 문제 상황, 설득하고 싶은 이유, 흥미를 끄는 질문 등

○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활용한 근거 제시

○ 생각을 강조, 요약하거나 실천 후의 긍정적인 모습 등



배움 다지기

●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글을 썼나요?

